



GP USA 소식을 전합니다

이름 모를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가끔씩 어머니가 아이였을 때(6.25 전쟁을 막 지난 시절) 만났던 미국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노란 머리, 항상 웃는 얼굴, 초록색판에 신기하게 붙어 있는 그림이야기, 그리고 한겨울 눈길을 헤치고 주일학교에 왔던 그 꼬마 아이를 꼭 안아 주었던 미국 선교사님 얘기를 할 때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된 그 꼬마 아이가 어른이 되고 그 아들이 커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꼬마아이를 꼭 안아 주었던 미국 선교사님을 정말 찾고 싶지만, 어머니는 그분이 미국에서 왔다는 것 빼고는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저의 가족이 그 이름모를 선교사님께 진 사랑의 빛, 복음의 빛입니다.

저는 잠시 선교회 대표 사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제가 있는 집은 1958년도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러나 그때 지어진 집으로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모양과 구조모두 현대적입니다. 아마도 그 옛날 저의 어머니를 안아 주셨던 그 선교사님은 이런 환경을 등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국에 오셨겠지요.

로마서 13:8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저에게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서로 빛지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한 이름모를 미국의 선교사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빛, 그 빛을 갚는 방법은 또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겠지요.

배선호 선교사

When I was a child, my mother used to tell me about an American missionary she met when she was a child (late 1950's just after the Korean War).

Yellow hair, smiling face, the mysterious green board that the missionary stuck some Bible figures on, my mother still has a warm memory of the missionary and tears well up in her eyes as

she remembered how the missionary warmly hugged her who came to Sunday School through the snow in the middle of winter.

My mother came to know Jesus through the missionary. As my mother grew up, God called her son to be a missionary. After I became a missionary, I really want to find the American missionary and appreciate her devotion. but my mother doesn't know anything about the American missionary except that she is from America. It is the debt of love that my family owes to the unknown missionary, the debt of the gospel.

I am staying in the United States as a director of a mission organization and the house I live in was built in 1958. However, it is still modern in shape and structure. Perhaps the missionary who hugged my mother had to leave such an environment to come to Korea, which had been ravaged by war.

Romans 13:8 tells us not to owe anything. To me, it sounds like we should owe Jesus to each other because Jesus is love. There is a debt of love that my family own to an unknown missionary from the States. Since I can't find the unknown missionary, I guess the way to pay the debt is to reach out another people who need Jesus and share the love of Jesus.

Sunho Bae

OFFICE UPDATE (March - April - May)

본부 RE-ORIENTATION

본국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Re-Orientation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교사들의 현지상황을 나누고 선교지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본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며 지피 선교회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 교육을 받습니다. 아울러 본부에 대한 바램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선교사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부터5월에 걸쳐 4차례 본부 Re-orientation이 진행되었습니다 (허창식&허성분 / 함제임스&함린다 / 윤재웅 / 김바울)

2022 상반기 이사회 (5/9 ~ 5/11/2022)

팬데믹 이후 첫 대면 모임으로 버지니아 헬로십 교회에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현지용목사담임) 2022 상반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참석: 배선호, 이영찬, 조용중, 유명기, 양성일, 김

대영, 안창호, 김영진, 현지용 이사 참석. 참관: 변한나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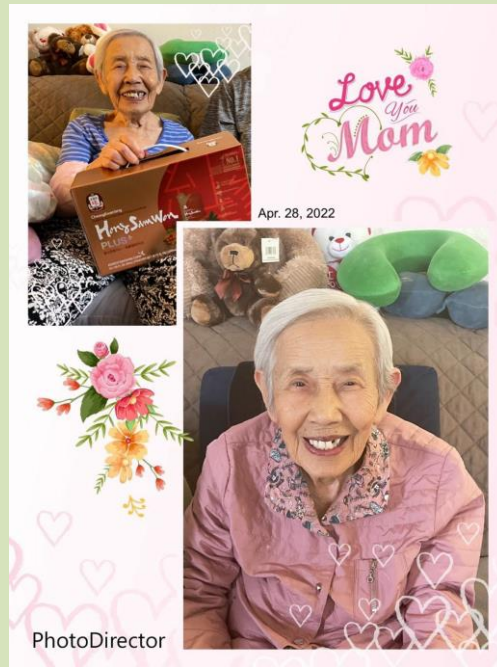
이번 이사회에서는 최근 중요성이 더해지는 난민사역과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선회에 안에서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비자발적 철수를 한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안창호 이사께서 GP-USA 의 Business as Mission 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COET (Council of Entrepreneurial Mission) 의 훈련과 사역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셨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보내기

미국과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 부모님들 32분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미국 본부를 대신하여 수고해주신 지피 코리아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교사 소식

- 유에스터(일본) :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어 local church에서 3년동안 영어수업과 주일 학교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2019 ~ 2022)
- 장례식:김철백 선교사(태국) : 모친상 3/2/2022 모든 장례절차는 한국에서 치뤄졌습니다.
- 조금심 선교사(V국) : 모친상이 3/26/2022 에 있었으나, 사역지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선교지 복귀 : Frank & Sara Pyon (V 국) 께서 3/16/2022 복귀하셨습니다.



정금태&이복래 (파라과이) / 안성원(인도네시아) 선교사께서 KWMF (한인 세계선교사 대회) 참석후 본부 방문을 하셨습니다



허익현&김영중 / 김은진(멕시코) : 목회자를 위한 가정 교회 컨퍼런스 참석후 본부를 방문하여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견습선교사 / 김정태 김경숙 선교사 이야기

김정태 선교사의 인도네시아 sharing (안성원 선교사 통역)



2021년에 GP USA 선교회에 실버 선교사로 허입이 되었으며,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vision trip (3/18/22 ~ 5/17/22) 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현지의 사역을 탐방하였으며, 미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이전 사역지인 인도 선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두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중안 신학교에서

독일 선교사님이 1986년 설립한 “안중안” 신학교에서 아침 7시 채플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왜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고 1년 교회 실습 과정을 마치면 목회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빈민촌에 세워진 개척교회 - 반따르 거방 교회



인도네시아에서 교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동네 주민 7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슬림 동네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무허가 교회이고, 교회 이름이 적혀진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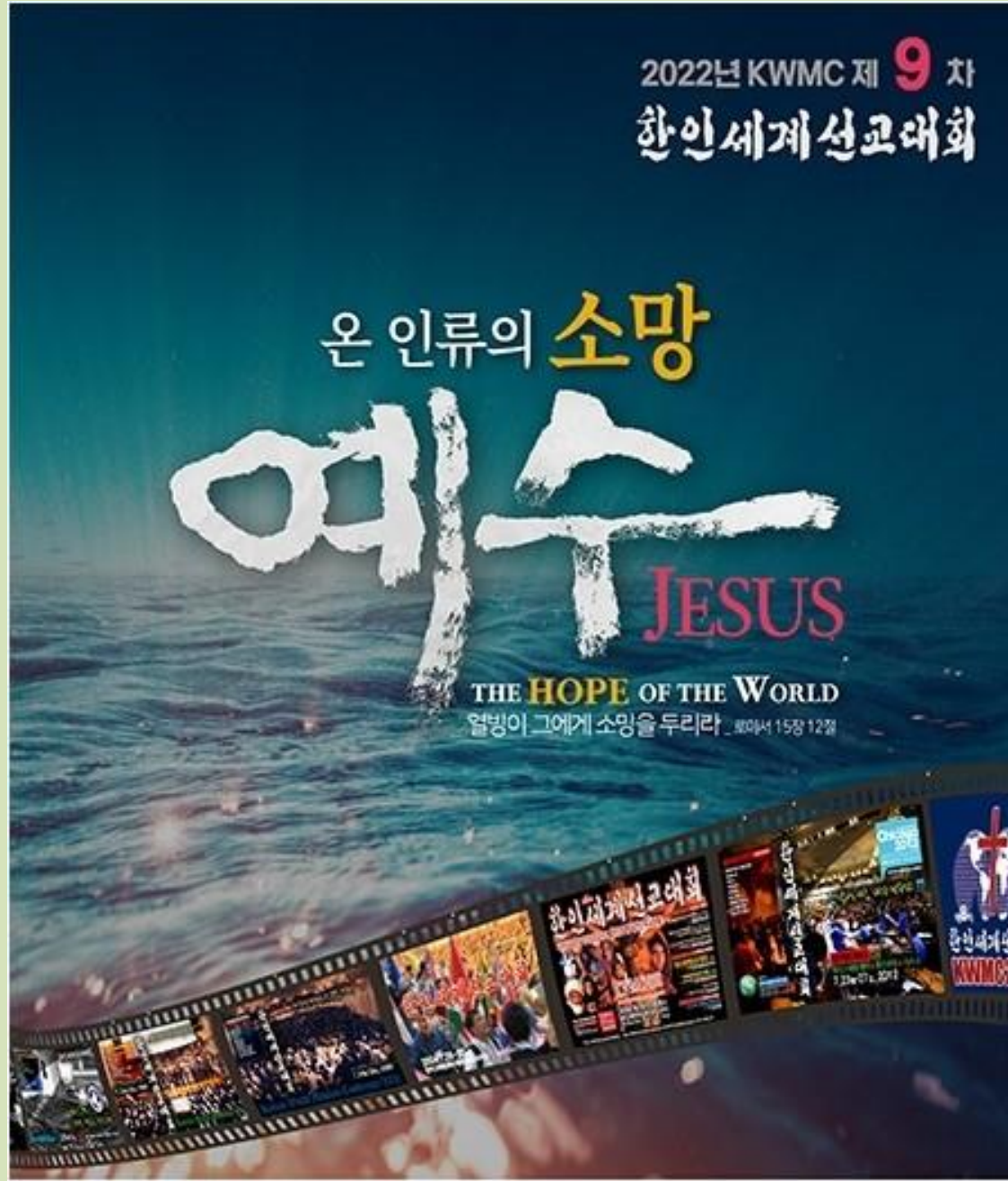
반동 고아원

반동은 자동차로 자카르타에서 두시간 거리, 큰 기대를 가지고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도(India)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고 또 앞으로 이곳에서도 어린이 사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20명의 아이들이 한 집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인도 선교센터 방문

카스트(Caste) 제도가 폐지 된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인도 사회의 밑바닥까지 인도인들의 삶 속에 남아 있는 계급제도, 계급이 다르면 결혼은 물론이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문화, 그래서 인도인들은 자신이 윗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래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섬기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형제의 발을 씻어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7i:j11 14 %1

주최: KWMC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lf:..ef mt'2i i;; 'll.£221

주관: KWMC 제 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준비위원회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는 북미주 한인교회와 선교단체들을 연결하여 선교적 연합사역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조용중 (GP-USA 이사) 선교사가 총재로 섬기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현장모임으로 만나는 이번 선교대회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관심있는 분들은 KWMC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kwmc.com/>

Business card |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Unsubscribe admin@gpusa.org

[Update Profil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admin@gpusa.org in collaboration with



Try email marketing for free today!